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

올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Brundtland 위원장이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란 연구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지구적 규모 및 인류보편의 지향점으로 제시한지 꼭 20년이 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용어의 개념정의를 둘러싸고 관련 사회부문별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 소개된 개념 숫자만 하더라도 수십가지에 이른다.

‘92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공식주제로 한 리우회의 이후 우리사회에서도 환경과 사회발전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주제를 편리하게 활용해오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용어가 간결화되어 슬그머니 환경적 건전성은 사라지고 발전의 지속성만 끈질기게 주장되고 있다. 이제는 유행어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용어정의는 생태적 안정, 경제자원 운용의 효율, 사회적 형평의 균형 있고 통합적인 추구라는 이념들을 훌륭하게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념의 애매모호성이 문제를 일으킨다.

모든 지도이념이나 제왕규범(帝王規範)들이 가지는 속성으로 이해는 하지만 용어사용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자기입지 강화를 위한 요술담요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현재 및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욕구의 수용 및 소화를 위한 자원이용의 몫 키우기가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인양 오해될 여지가 있게 된다. 더욱이 욕구수준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욕구관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다.

이리하여 앞에서 제기한 오해여지의 해소와 2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 개념요소와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초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고, 그러한 요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리된 지속가능성의 본질적 요소는 인간생활의 자연적 기반보전, 자연과 인간의 연계 및 상호의존성 인정, 생태적지속성과 사회·경제적 지속성의 통합적 고려는 물론이고 문화, 윤리, 규범, 거버넌스 등의 복합적

연관 등이 언급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본요건으로는 삶의 질 중시와 사회생태체계의 온전성이 보전되고, 생태계의 순조로운 질서와 생명부양 기능이 유지되며, 민주적 거버넌스, 사전배려와 적응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통합 증식을 위한 줄기찬 노력 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건들의 밑바탕에는 항상 성장과 발전은 구분되어야 하고,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자연생태계가 강제적으로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생태적 예견과 겸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핵심요소와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되어 왔는가를 검토·분석하고, 그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변화 과정을 주시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자세만들기와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을 향한 사회적 기대의 증대과정과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사회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영양소와 핵심에너지의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포괄적 기대감 내지는 역할인정 이외에 사회구성원들은 줄기차게 기업에 대해 사회적 요구를 전달한다.

자본주의 초기 고한노동(苦汗勞動)의 시대에는 작업환경개선과 건강 및 안전보장의 바램이, 그 다음에는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거래에 대한 고객 기대가 중심을 이루었다. 현재는 환경보전 및 경영, 청정기술개발 및 사회적 책임원리의 기대가 주된 기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자연계의 한계에 순응한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자본의 증식요구를 끊임없이 덧붙이고 있다.

환경상태의 단순한 개선 및 오염방지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가치 증진, 교양 및 지식함양, 사회적연대 및 결속지원, 상호신뢰감 및 네트워크의 귀속감 고양,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의 길잡이 역할까지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의 확장추세를 사회의 투명성증대, 국가기능의 유연화, NGO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기업이 이러한 사회적 기대감을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준비와 의지를 가질 것을 기대해 본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윤 서 성